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광주 -5/-1℃ 목포 -4/-1℃ 여수 -3/0℃

光州日報

단기 4342년 (음력 11월 1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63호 1판 2009년 12월 31일 목요일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위기의 2009년 뒤로… 금호산업 소속 고속버스들이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 줄지어 서울 등 전국의 목적지를 향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호남 유일의 대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 등 주력계열사 3곳의 경영권을 채권단의 손에 넘기게 돼 창사 63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광주·전남 경제계는 2009년 한해 동안 중견 건설·조선사 등 향토기업이 줄지어 구조조정 된 데 이어 금호그룹마저 흔들리는 아픔을 겪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산 협상 결렬

여야 충돌 위기…지역예산 지키기 비상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투트랙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예산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일반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양당의 시각차가 현격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끌어내기 생색내기와 구색 맞추기를 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협상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날 수차례 4대강 예산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다양한 통로로 물밑 접촉을 하며 합의점 찾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의견차가 너무 커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비,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총동원해 실력 저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강행 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 같이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전혀 풀리지 않고 여당의 단독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그동안 공들여 확보해 놓은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 지도부에서 공공연히 지역 예산 챙기기를 자제하라고 주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광주·전남지역 예산을 야당과의 협상 대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정쟁 속에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호 63년만에 최대 위기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오너일가 보유주식 등 사재 출연

호남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주력계열사 3곳의 경영권을 채권단의 손에 넘기게 돼 창사 63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부채를 제 때 갚지 못해 주력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되고 대우건설을 채권단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3·8면〉

하지만,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채권단과 협약을 맺어 경영정상화를 추진 하기로 해 그룹 해체 위기는 모면했다. 대신 박삼구 명예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 일가는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호석유화학 주식(48.5%) 등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모두 채권단에 담보로 넘겨 처분을 위임키로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0일 이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금호그룹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매각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유동성 문제가 현실화된 데 따라 자본잠식 위기에 놓인 금호산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키로 했다. 특히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이 이뤄지면 출자전환 등을 거쳐 금호그룹의 모태가 된 금호고속의 경영권도 63년만에 채권단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 산업은행은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해 대우건설의 주식 50%+1주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또 PEF를 만들어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금호생명을 공동 인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등 주력 6개 계열사 중 3개 계열사를 포기하고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등의 나머지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채권단 일각에서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함께 파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자칫 현실화될 경우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 항공 등 주력 2개 계열사만 남는 중견 그룹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 일가는 부실 경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과 자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처분도 위임키로 했다. 금호가 그룹 전체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채권단이 계열사 주식과 경영권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오남수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은 "주력 계열사 2곳의 워크아웃을 신청한데 대한 경영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2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를 이루도록 힘쓰고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과 오너 사재출연 등을 추진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 살려야" 각계 한목소리

시민·경제계·정치권 특단의 대책 촉구

광주·전남 지역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지역 4개 대학 총동창회 등은 30일 각각 성명을 내고 "광주는 그동안 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엄청난 상처를 입었는데 금호마저 해체되거나 회생불능 상태로 빠지면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와 채권단의 금호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회생노력을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그룹은 호남지역의 경제발전과 생존에 힘을 불어 넣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금호그룹의 위기는 호남의 위기인 만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는 이어 "금호그룹도 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도 금호아시아나를 살려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금호그룹은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이라며 "금호그룹이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기존의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번 금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제 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호남기업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금호그룹을 회생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김모(52·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경제적 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유일한 대표 그룹인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라며 "지역민들도 힘을 모으겠지만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